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2014 년 4 월 7 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2 장	담당: 홍보실 오가혜 연구원
전화: 02-3701-7349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일본·아베 호감도 상승 / 북한·김정은은 하락
한미일 정상회담 후 여론조사 결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인의 일본과 아베 일본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이사장 겸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이 이번 달 1 일~3 일 전국 성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산데일리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변국 호감도(10 점 만점)는 미국 5.88 점, 중국 4.83 점, 러시아 3.82 점, 일본 2.54 점, 북한 2.32 점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올해 들어 '전혀 호감 없음'인 0 점에 가까운 2 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 1 월에는 북한 호감도가 2.14 점으로 최하위를, 2 월과 3 월에는 일본 호감도가 각각 2.17 점과 2.27 점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이번 달 들어 일본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만남이라는 호재가 작용한 반면, 북한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무인기 도발이라는 악재가 발생하며 북한이 다시금 주변국 호감도 순위에서 최하위로 내려갔다.

국가수장 호감도 순위(10 점 만점)에도 변화가 있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가 6.19 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 시진핑 주석(4.88 점), 러시아 푸틴 대통령(3.56 점)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1.11 점으로 최하위에 머문 아베 총리 호감도는 4 월 들어 1.24 점으로 소폭 상승했고, 3 월 1.27 점이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가 1.05 점으로 0.22 점 하락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지윤 여론계량분석센터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미약하게나마 상승했지만, 4 일 있었던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통과를 필두로,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발표,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등 국내 여론의 반일감정을 부추길 사건이 연이어 예고되어 있다"며 "4 월 이후 대 일본 여론이 다시금 악화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아산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참고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매월 정기적으로 주변국 호감도 및 주변국간 국가관계, 국가수장 호감도 아산데일리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년 3월 한국인의 국제관계 인식 조사는 2014년 3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사용한 임의번호 걸기(Random Digit Dialing, RDD)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실시됐고,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이다.

표 1. 국가 호감도[1]

	2013 년										2014 년			
	1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미국	5.70	5.81	5.74	5.60	5.61	5.69	5.86	5.67	5.68	5.40	5.54	5.72	5.79	5.88
중국	4.45	4.38	4.22	4.33	4.92	4.77	4.66	4.62	4.47	4.37	4.59	4.83	4.82	4.83
일본	3.31	3.19	2.93	2.62	2.96	2.64	2.66	2.46	2.52	2.57	2.38	2.17	2.27	2.54
북한	2.99	2.03	2.07	2.26	2.27	2.38	2.43	2.46	2.28	2.37	2.14	2.56	2.71	2.32
러시아	-	-	-	-	-	-	-	-	-	-	-	-	3.69	3.83

표 2. 국가수장 호감도[2]

구분	2013 년		2014 년		
	7 월	11 월	1 월	3 월	4 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	6.29	6.25	6.21	6.19	6.19
중국 시진핑 주석	5.35	5.31	4.55	4.78	4.88
러시아 푸틴 대통령	4.08	4.87	4.14	3.47	3.56
일본 아베 총리	1.65	1.43	0.99	1.11	1.24
북한 김정은 위원장	1.14	1.19	0.99	1.27	1.05

◆ 조사관련 문의: 김지윤 연구위원(02) 3701-7354, jiyoon@asaninst.org
강충구 연구원(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이의철 연구원(02) 3701-7337, eclee@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 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 호 수용소 탈출》, 《선거연구 시리즈 1,2,3》 연구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 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5 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 아산데일리폴 (조사기간 2013 년: 1/3~5, 3/30~4/1, 5/2~4, 6/1~3, 7/1~3, 8/3~5, 9/2~4, 10/3~5, 11/2~4, 12/2~4, 2014 년: 1/1~3, 2/1~3, 3/1~3, 4/1~3)

[2] 아산데일리폴 (조사기간 2013 년: 7/10~12, 11/17~19, 2014 년: 1/1~3, 3/1~3, 4/1~3)